

- 주요 뉴스: 러시아와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군사 훈련을 연장. 전쟁 우려 고조
  - G20, '23년 글로벌 법인세 시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
  -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, 전월비 하락.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
  - 중국 재정상, 법인세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  
 주가 하락[-1.6%], 달러화 약보합[-0.04%], 금리 하락[-1bp]
 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영향  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1.9% 하락
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따적이지 않다는 평가 등이 배경  
 유로화가치는 0.3% 하락, 엔화는 0.4% 상승
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에 기인  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수요 증가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2% 하락, 한국 CDS 상승

|    |      | 2/18일   | 2/11일   | 전주말대비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2/18일   | 2/11일   | 전주말대비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348.9 | 4,418.6 | -1.58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93%   | 1.94%   | -1bp   |
|    | 유럽   | 460.81  | 469.57  | -1.87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0.19%   | 0.30%   | -11bp  |
|    | 중국   | 3,490.8 | 3,462.9 | 0.80% 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28bp    | 27bp    | 1bp    |
|    | 일본   | 27,122  | 27,696  | -2.07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4bp    | 54bp    | -0bp   |
|    | 한국   | 2,744.5 | 2,747.7 | -0.12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400     | 421     | -21bp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6.04   | 96.08   | -0.04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27.75   | 27.36   | 1.43%  |
|    | 유로화  | 1.1322  | 1.1350  | -0.25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91.07   | 93.10   | -2.18% |
|    | 엔화   | 115.01  | 115.42  | 0.36% 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52.0   | 450.6   | 0.30%  |
|    | 위안화  | 6.3256  | 6.3546  | 0.46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898.4 | 1,858.8 | 2.13%  |
|    | 원화   | 1,195.9 | 1,198.5 | 0.22%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러시아와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군사 훈련을 연장. 전쟁 우려 고조

- 벨라루스의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훈련을 2/20일(현지시각) 종료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에서의 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. 연장된 연합 훈련의 구체적인 종료일은 미공개
- 벨라루스-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거리가 90km에 불과하여 관련 지역에서 훈련했던 러시아 병력의 철수 여부는 침공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. 이번 연장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 고조로 연결될 전망
- 한편 CNN에 따르면, 러시아군의 주력 전투부대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중 배치. 또한 미군 당국은 러시아의 군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,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
-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러시아-우크라이나 갈등 증폭,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, 금융시장 위축, 경기 불확실성 등은 모두 연준으로 하여금 적절한 통화긴축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평가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G20, '23년 글로벌 법인세 시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

-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회의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.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분명한 가운데, 상당수의 국가들도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결정의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을 전망

### ■ 연준 월러 이사, 경기 과열 용인이 취약 계층의 고용개선에 도움

- 경기 과열의 장기화는 흑인 노동자의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모든 계층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.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 취약 계층의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는데, 이는 통화정책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

### ■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, 전월비 하락.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

- 해당 지수는 119.6으로 전월비 0.3% 하락했으며, 이는 오미크론 확산, 물가 상승, 공급 차질 지속 등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우려 등이 반영

## ■ 미국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펀드, 6주 연속 자금 유출. 투자자의 경계감 지속

- 리피니티브에 따르면, 2/16일 기준 해당 펀드에서 36억달러, 최근 6주 동안 167억달러가 유출. 한편 금년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발행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

## ■ JP모건, 연준의 9회 연속 금리인상을 예상.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반영

- Bruce Kasman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해당 결정을 통해 '23년 초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. 최근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표들이 예상 외로 강한 상방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

## ■ 중국 재정상, 법인세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

- 류 쿤 재정상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. 동시에 재정준칙을 준수하여 재정안정도 유지하겠다고 부연. 또한 지속 가능하고 건전성이 우수한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정치적 책임도 이행하겠다고 첨언

## ■ 중국 인민은행, 기후대응 관련 기업의 비용 증가는 은행권 위험을 확대

- 류귀창 부총재는 화력발전, 철강,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기후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해당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

## ■ 일본은행 이사, 인플레이션 여건 고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필요

- 시미즈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. 또한 G20 국가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. 한편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여타 국가들에게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18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'21년 11월 경상수지(억유로): 226, 10월(236), 예상치(262)
- 일본 1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0.5%, '21년 12월(0.8%), 예상치(0.6%)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1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인민은행 금리결정, 연준 보우먼 이사 강연,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(휴일)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,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될 소지 - WSJ

(Fiscal Stimulus Is Turning Into a Fiscal Drag, in a Big Headwind for Growth)

- 미국 정부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추진한 3조6000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'21년 GDP의 괄목할만한 증가에 크게 기여. 최근 이러한 경기부양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만료되었으나, 인플레이션 우려로 추가 부양책 시행은 어려움에 직면
- 반면,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의 초과저축은 물가상승 여파로 소비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할 가능성. 연준 의장도 향후 경제성장에서 재정정책의 영향력 감소를 예상하면서, 이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
- Goldman Sachs의 David Mericle은 2022년 재정 지원 대폭 축소는 확실시되며,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

### ■ 미국 금융자산의 가격 변화,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시 - 블룸버그

(The Federal Reserve Is Veering Toward a Hard Landing)

- 최근 미국 주가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, 투자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'2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. 이는 연준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긴축정책을 조기에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경제의 연착륙이 어렵다는 신호
-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, 임차비용 증가 등을 고려 시 고물가 억제를 위한 연준의 통화긴축 노력은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. 또한 최근의 주가 부진과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 등도 소비수요의 둔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

### ■ 우크라이나 사태, 미국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전망 - Financial Times

(How will geopolitical tensions affect markets?)

### ■ 일본 경제,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기술력 및 산업경쟁력에 한계 노출 - Financial Times

(Japan's 'national resilience' has taken a battering)

### ■ 신흥국 자산 가격,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이미 상당 수준 반영 - 블룸버그

(Traders Look Past Ukraine Angst to Load Up on Emerging Asse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